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11개 지구 수질개선사업 추진

송해창 기자 | 승인 2025.06.09 16:59 | 호수 3688

[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가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본부는 최근 5개년 수질 관리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진

행해 왔다. 이달 기준 총 23지구의 사업을 마쳤고, 올해 총 11지구에 129억원을 투입한다.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정화식물 식재, 미생물에 의한 정화, 식물에 의한 흡수 등 자연정화 방식 위주로 진행된다. 하절기에는 일시적인 수질기준 초과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기포 장치 설치, 물순환 장비 구축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충남본부장은 “물을 철저히 관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